* 1. **나에게 쓰는 便紙**
  2. 20194651 소프트웨어학과 조나단

學期 末의 나에게,

잘 지내지? 期末 試驗도 끝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只今 여기는 이제 막 봄이 찾아와서 꽃들이 피려고 해. 너는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겠구나. 여러 가지 科目을 들어보니 어떠니? 특히 글로벌漢字 科目은 어땠어? 나는 學校에서 卒業에 必要하다고 해서 申請했는데 受業을 들어본 너는 어떨지 모르겠네.

처음 申請할 때 漢字라는 科目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苦悶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나의 職業이나 專攻과의 특별한 關係는 없지만 앞으로 韓國語를 使用하고 한글로 表記를 하는 韓國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必要할 것 같아. 平素에 新聞이나 冊에서 附加的인 說明을 돕기 위해서 많은 漢字를 使用하는데 글로벌漢字라는 講義를 통해 그런 漢字들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한 學期를 마친 너에게 이제는 漢字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

只今 내가 생각하는 計劃은 2 學年 때 外國으로 交換學生을 가서 1年을 지내고 그 後에는 軍隊를 다녀오고 3, 4學年때는 專攻 受業과 就業 準備를 하려고 해. 軍隊를 가기 전에 던지 다녀온 뒤에 復學하기 前에는 길게 旅行을 떠나보고 싶어. 全世界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經驗을 하고 世上을 보는 새로운 視角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計劃이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너도 準備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또 學校에서 하는 專攻 受業이 關心이 있어도 이미 아는 內容을 배우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基礎를 다시 다진다고 생각하고 꼭 熱心히 들어. 只今도 소프트웨어 開發者라는 進路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더 關心 있는 部分으로 깊이 工夫해서 더 競爭力을 키워봐.

2學期도 熱心히 하고 여름放學 알차게 보내렴.

2019年 3月 18日, 學期 初의 내가.